

2012. 02. 07

Quant Issue

환매를 피하는 투자전략

가벼운 주식을 사자!

퀀트/파생 Analyst 강승철

Tel. 368-6452

sckang@eugenefn.com

Summary

외국인이 주도하는 시장 상승

- 외국인이 주도하는 시장 상승이 지속되고 있음.
- 특이한 점은 연초 이후 외국인 매수가 대부분 바스켓(basket) 형태로 유입되고 있다는 점
- 연초부터 2/3일까지 외국인의 KOSPI 순매수 금액은 총 7.5조였는데 이 중 프로그램 순매수 금액이 89%를 차지했음(6.7조원)

외국인 주식 매수의 성격 ? Not Buy Korea, But Buy EM

- 외국인 주식 매수의 대부분이 바스켓 형태로 유입되는 것은 외국인 주식 매수의 근원이 이미징 마켓에 투자하는 글로벌 펀드로의 자금 유입에서 비롯됐기 때문
- 이는 외국인들의 한국 주식 매수가 Buy Korea보다 Buy Emerging Market(EM)의 성격이 짙다는 것을 방증하는 부분. 외국인 주식 매수가 특정 종목에 대한 선별 매수 보다는 시장 전체와 시총 상위 종목들에 대한 매수라는 것을 의미

수급으로 찾는 투자 아이디어 ? 기관 보유 비중이 낮은 종목에 관심

- 한편 국내기관은 연초 들어 주식 매수가 주춤하고 있는데, 주 배경은 펀드 환매임. 1월 한 달간 공모 주식형 펀드에서는 총 1.2조원 자금이 빠져나가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자금 유출이 나타났음
- 수급적인 측면에서 현 국면은 외국인 매수의 영향력과 함께 (펀드 환매에 따른) 기관 매도의 영향력이 커진 국면임
-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시총 상위 주식 중 기관 보유 비중이 낮은 종목에 대한 관심이 필요함. 기관 매도 압력이 상대적으로 적고, 외국인 주식 매수의 (+) 효과는 온전히 누릴 수 있기 때문임
- 최근과 시장 상황이 유사했던 2009년 상반기에도 기관 보유비중이 낮은 종목들이 KOSPI 대비 초과수익을 기록한 전례가 있음
- 이에 현 국면에서 수급상 이점을 누릴 수 있는 '가벼운' 종목(기관 보유 비중이 낮은 종목)들을 추출했음. POSCO, 삼성생명, KT&G, 삼성중공업, 이마트, 기업은행 등 KOSPI 시가총액 상위 70위권 이내에 포함된 26개 종목들임. 단기적으로 해당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유효할 것으로 판단함

퀀트/파생 Analyst 강승철

Tel. 368-6452

sckang@eugenefn.com

EUGENE

your best
partner.



Contents

Summary	3
Intro - 외국인인 주도하는 시장 상승	6
외국인 주식 매수의 성격 - Not Buy Korea, But Buy EM	7
수급으로 찾는 투자 아이디어 - 기관 보유 비중이 낮은 종목에 관심	9
기관 보유 비중이 낮은 '가벼운' 종목 추정	10
2009 년의 경험- 지금과 유사한 상황에서 '가벼운' 주식이 초과수익을 기록	13



Intro- 외국인 주도하는 시장 상승

**외인이 주도하는 시장 상승
- 외국인 입장에서 시장을
보는 것이 중요**

연초 이후 외국인이 주도하는 시장 상승이 지속되고 있다.

KOSPI 지수가 7.12% 상승한 1월에 외국인은 유가증권 시장에서만 6조 2,500억원 주식 순매수를 기록했는데, 월별 순매수 금액으로는 사상 최대 순매수 금액이었다. 반면 국내기관은 1월에 3,600억원 순매수에 그쳤고, 개인은 5조원 이상 순매도를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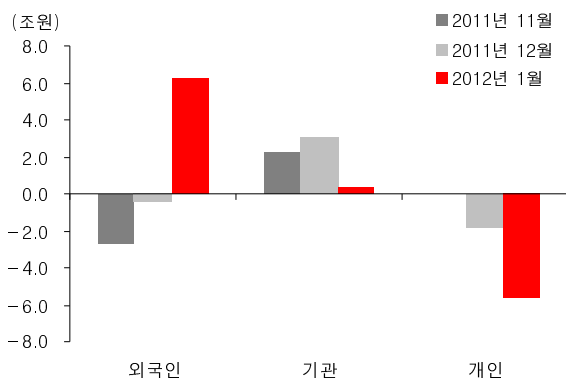
외국인이 주도하는 시장 상승이다 보니 외국인의 입장에서 시장을 보는 것이 중요해진 상황이다.

**외국인의 주식 매수는
대부분 바스켓(basket)
형태로 유입되고 있음**

특이한 점은 연초 이후 외국인 매수가 대부분 바스켓(basket) 형태로 유입되고 있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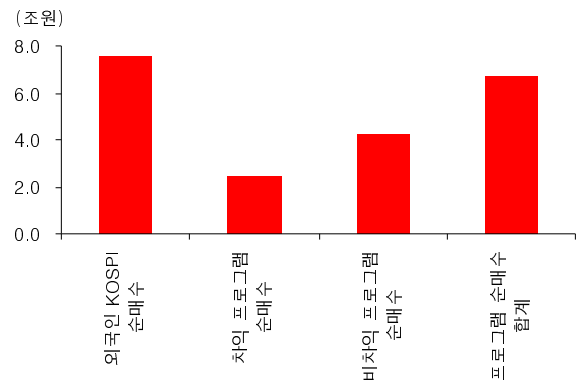
지난 주말(2/3일)까지로 기간을 확장하면 연초 이후 외국인의 KOSPI 순매수 금액은 총 7조 5,550억원이었는데, 같은 기간 외국인의 프로그램 총 순매수 금액이 6조 7,260억원으로, 전체 주식 순매수의 89%를 차지했다.¹(차익, 비차익 프로그램 합산)

도표 1 투자주체별 KOSPI 순매수



자료 : KRX

도표 2 연초~2/3일 외국인 KOSPI 순매수
- 프로그램 매수가 전체의 89%



자료 : 유진투자증권, KRX

¹ 차익 프로그램 매수는 현물(KOSPI200)과 지수선물의 가격차이를 이용한 것인데, 통상 KOSPI200 중 상위 120개 가량의 종목을 대상으로 매수가 이루어진다.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 역시 특정 종목보다는 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한 바스켓(basket)매수 유입인 경우가 일반적이다.



외국인 주식 매수의 성격 – Not Buy Korea, But Buy EM

외국인 주식 매수의 배경은
글로벌 펀드 자금의 유입
Buy Korea보다
Buy EM 전체의 성격

외국인 주식 매수의 대부분이 바스켓 형태로 유입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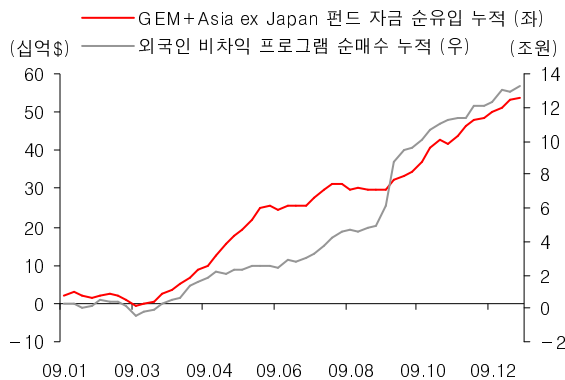
이는 연초 이후 외국인 주식 매수의 근원이 (이머징 마켓에 투자하는) 글로벌 펀드로의 자금 유입에 있기 때문이다.

아래 <도표 3, 4>는 2009년과 최근에 글로벌 GEM, Asia ex Japan 펀드로의 자금 순유입 누적과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비차익 프로그램 순매수 누적 추이를 함께 그려준 것인데, 양자가 밀접하게 연동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외국인들의 주식 매수 배경이 글로벌 펀드로의 자금 유입이라는 사실은 또한 외국인들의 한국 주식 매수가 Buy Korea라기 보다는 Buy Emerging Market(EM)의 성격이 짙다는 것을 방증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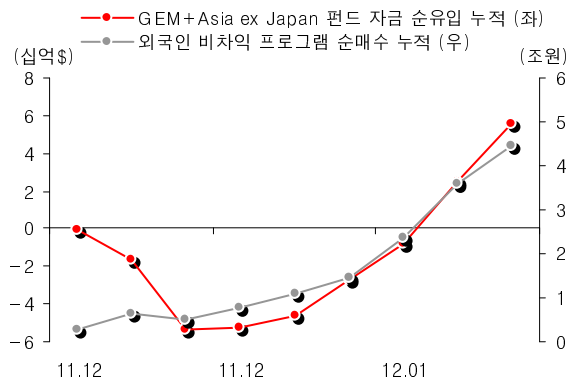
실제로 연초 이후 외국인들의 주식 매수는 한국뿐 아니라 여타 아시아 국가들 전반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도표 3 EM 지역 펀드 Flow와 외인 비차익 프로그램 순매수 누적 추이 - 2009년



자료: 유진투자증권, KRX

도표 4 EM 지역 펀드 Flow와 외인 비차익 프로그램 순매수 누적 추이 - '11년 12월 ~ '12년 1월



자료: 유진투자증권, KRX



글로벌 펀드 자금 유입의 상당부분은 ETF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EM 펀드로 유입되는 자금의 상당 부분이 ETF를 통해 유입되고 있다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글로벌 펀드 플로우 자료에 따르면, 연초 이후 이머징 마켓(GEM)과 일본 제외 아시아지역(Asia ex Japan)으로 유입된 자금의 60% 가량은 ETF를 통한 것으로 나타났다.

EM 지역 ETF의 70%는 EM 전체를 추적하는 지수를 벤치마크로 삼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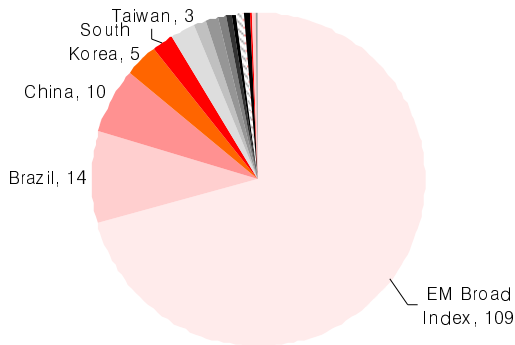
2011년 말 기준으로 글로벌 ETF의 총 자산 규모는 1조 5,000억\$에 달하며, 90% 이상은 미국과 유럽 지역에 상장된 ETF들이다. 재미있는 점은 (미국과 유럽에 상장된) EM지역 주식에 투자하는 ETF의 대부분은 특정 국가가 아니라 MSCI Emerging Market 지수처럼 EM 전체를 추적하는 지수를 벤치마크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2011년 6월 말을 기준으로 하면 미국과 유럽에 상장된 EM지역 투자 ETF의 총 자산규모는 2,020억\$(한화 약 220조원)인데, 이 중 MSCI Emerging Market 지수 같은 Broad Index를 추적하는 ETF의 자산규모가 전체의 69%를 차지했으며, 한국만을 추적하는 ETF는 전체의 3%(66억\$)에 불과했다. (도표 5, 6)

외국인 주식 매수는 종목에 대한 선별 매수가 아니라 시장 전체, 시총 상위 종목에 대한 전체 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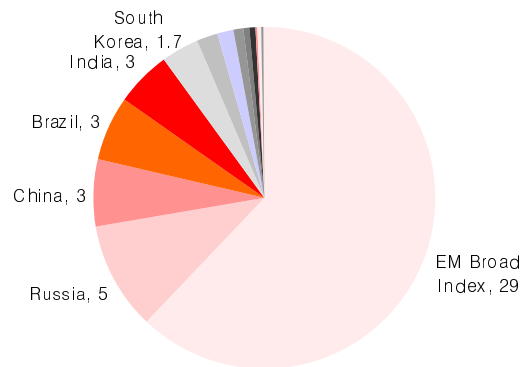
결국 한국 주식 매수가 이머징 마켓 전체 주식 매수의 한 부분이라는 것은, 외국인 주식 매수가 특정 종목에 대한 선별 매수라기 보다 시장 전체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대한 전체적인 매수라는 것을 의미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도표 5 EM 주식투자 ETF의 투자지역 세분화 - US 상장 ETF (단위: 십억\$)



자료 : Bloomberg, 2011년 6월 말 기준

도표 6 EM 주식투자 ETF의 투자지역 세분화 - 유럽 상장 ETF (단위: 십억\$)



자료 : Bloomberg, 2011년 6월 말 기준



수급으로 찾는 투자 아이디어 - 기관 보유 비중이 낮은 종목에 관심

지수 상승 따른 펀드 환매로 기관은 주식을 매도

한편 국내기관은 연초 들어 주식 매수가 주춤하거나 매도로 돌아서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배경에는 펀드 환매가 주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제로 금융투자협회 집계에 따르면 올해 1월 한 달 동안 공모 주식형 펀드에서는 총 1조 2,100억원의 자금이 빠져나가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자금 유출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적으로 외국인 매수 영향력과 함께 기관의 매도 영향력도 커질 수 있는 국면

아직 시장이 상승 초반기라는 점을 감안하면 지수가 상승할수록 펀드 환매가 추가로 이어질 공산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결국 국내 기관의 주식 매도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

결국 현재 시장 상황은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외국인 매수의 영향력과 함께 기관 매도의 영향력이 커진 국면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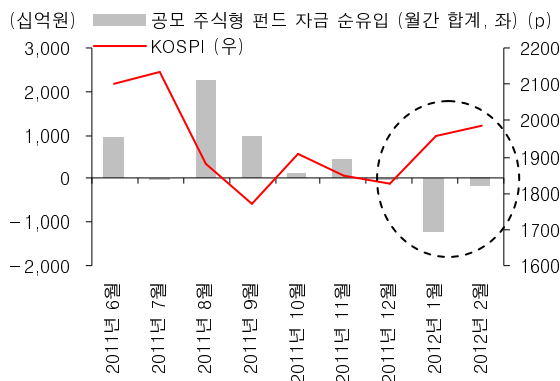
실제로 아래 <도표 8>을 보면, 연초 이후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비중이 함께 상승하고 있는데, 높아진 매매 비중은 곧 높아진 시장 영향력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기관 보유 비중이 낮은 가벼운 종목에 관심

외국인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전체적으로 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주도하고, 기관은 펀드 환매에 따라 보유한 주식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시가총액이 큰 대형주 중 기관 보유 비중이 낮은 종목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기관투자자들의 매도 압력이 상대적으로 적고, 외국인 주식 매수의 (+) 효과는 온전히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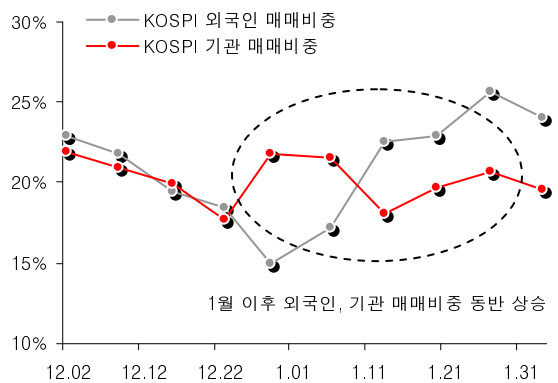
이에 우리는 현 국면에서 수급상 이점을 누릴 수 있는 '가벼운' 종목(기관 보유 비중이 낮은 종목)들을 추출해 보았다. 단기적으로 해당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유효할 것으로 판단한다. (도표 10 참고)

도표 7 지수 상승과 함께 펀드 환매 나타남



자료: 금융투자협회

도표 8 외국인, 기관 KOSPI 매매비중 추이 - 2011년 12/2일 ~ 2012년 2/3일



자료: 유진투자증권, KRX, 주간 추이임



기관 보유 비중이 낮은 '가벼운' 종목 추정

기관 보유 비중 낮은
종목 추정을 위해
설정액 5천억원 이상
펀드 31개를 샘플로 설정
샘플 펀드 31개의
보유 상위 종목 추정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기관의 보유비중이 낮은 종목들을 추정하기 위해 올해 1월 말 기준 설정액 5,000억원 이상인 공모 주식형펀드(인덱스펀드는 제외) 31개를 샘플로 설정했다. 샘플로 이용한 펀드들의 1월 말 시점의 설정액 합계는 27조 9천억원이다.

〈도표 9〉는 위 샘플 펀드들의 3개월 전 시점(2011년 10월 말)의 보유 상위 10개 종목 자료를 이용해 현재(2012년 2/3일) 시점의 기관 보유 종목 리스트를 추정한 것이다.²

2011년 10월 말 시점에서 샘플 펀드 전체의 특정 종목 보유 금액을 계산하고, 2011년 11월부터 현재(2012년 2/3일)까지 해당 종목의 투신 순매수 금액을 합산하여 현 시점의 종목별 보유 금액을 추정했다.

² 펀드의 보유종목 관련 자료는 보유 상위 10개 종목만 알 수 있고, 시점도 현재로부터 3개월 전 자료만 확인이 가능하다.



도표 9 5,000억원 이상 주식형 액티브 펀드의 보유 상위 종목 추정

종목명	2011년 10월 말 시점의 샘플펀드 내 보유금액 합계 (A, 십억원)	11년 11/1 ~ 12년 2/3일 투신 순매수 (B, 십억원)	A + B	샘플펀드 전체 설정액 대비 비중
삼성전자	2,734	409	3,143	11.2%
현대차	618	-2	617	2.2%
LG화학	564	-123	440	1.6%
SK이노베이션	404	-20	385	1.4%
삼성물산	362	4	366	1.3%
현대건설	259	75	333	1.2%
LG전자	110	208	318	1.1%
기아차	379	-62	317	1.1%
NHN	368	-81	288	1.0%
LG디스플레이	96	177	273	1.0%
하이닉스	196	75	270	1.0%
신한지주	216	37	254	0.9%
하나금융지주	242	7	249	0.9%
LG생활건강	346	-117	229	0.8%
한국전력	128	86	214	0.8%
현대모비스	708	-520	188	0.7%
엔씨소프트	319	-133	187	0.7%
현대제철	94	87	181	0.6%
두산중공업	33	119	152	0.5%
SK텔레콤	137	14	151	0.5%
금호석유	161	-13	148	0.5%
LG	72	63	135	0.5%
OCI	123	7	130	0.5%
대림산업	54	73	127	0.5%
호남석유	60	66	126	0.4%
현대중공업	146	-28	119	0.4%
S-Oil	25	91	116	0.4%
코오롱인더	37	78	114	0.4%
CJ제일제당	203	-92	111	0.4%
아모레퍼시픽	159	-48	111	0.4%
LS	142	-33	109	0.4%
롯데쇼핑	184	-80	104	0.4%
한국타이어	19	80	99	0.4%
SK C&C	147	-64	83	0.3%
LG상사	41	39	80	0.3%
우리금융	42	32	74	0.3%
삼성엔지니어링	203	-130	73	0.3%
풍산	60	10	70	0.3%
KB금융	152	-90	62	0.2%
SK	127	-68	59	0.2%
한국금융지주	34	19	53	0.2%
삼성테크윈	151	-99	51	0.2%
웅진코웨이	58	-7	51	0.2%
한국가스공사	12	37	50	0.2%
SKC	29	11	40	0.1%
고려이연	39	-7	32	0.1%
현대글로벌비스	75	-54	21	0.1%
삼성화재	186	-165	21	0.1%
남양유업	17	3	20	0.1%
우리투자증권	13	7	20	0.1%
세이베스틸	32	-14	18	0.1%
녹십자	33	-15	18	0.1%
동아타이어	16	0	16	0.1%
한화	45	-30	15	0.1%
GS	15	-6	9	0.0%

자료: 유진투자증권, 제로인

주: 샘플펀드 전체 설정액 대비 비중은 샘플로 설정한 31개 펀드 설정액 합계 27.9조원 대비 A+B의 비중임



**기관 보유 비중이 낮은
'가벼운' 종목 추정**

〈도표 9〉에 정리한 종목들을 전체 주식형 펀드의 대략적인 포트폴리오라고 가정하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도표 9〉에 포함되지 않은 종목은 기관 보유 비중이 낮은 종목으로 간주할 수 있다.

아래 〈도표 10〉은 2/3일 기준 KOSPI 시가총액 상위 70위 이내 종목 중 〈도표 9〉에 포함되지 않은 종목을 따로 정리한 것이다. 해당 종목들은 기관의 환매 압력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가벼운' 주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연초 이후의 시장 상황, 즉 외국인이 주도하는 시장 반등과 펀드 환매, 기관의 주식 매도가 함께 나타나는 양상이 당분간 더 지속된다면 아래에 정리한 종목들이 시장 대비 높은 수익률을 거둘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한다.

도표 10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 중 기관 보유 비중이 낮은 '가벼운' 종목 추정

섹터	업종그룹	종목	시가총액 (2/3일, 십억원)	KOSPI 시총 순위	1월 수익률	KOSPI 대비
소재	소재	POSCO	36,357	3	9.1%	2.0%
금융	보험	삼성생명	17,220	10	3.6%	-3.5%
필수소비재	음식료 및 담배	KT&G	10,338	23	-3.4%	-10.6%
통신서비스	통신서비스	KT	8,799	29	-6.3%	-13.4%
산업재	자본재	삼성중공업	8,219	31	28.0%	20.8%
경기소비재	유통	이마트	7,624	34	-2.7%	-9.8%
금융	은행	기업은행	7,589	35	1.2%	-5.9%
금융	보험	대한생명	6,775	39	3.9%	-3.2%
IT	하드웨어	삼성SDI	6,492	43	4.5%	-2.6%
경기소비재	소비자 서비스	강원랜드	5,744	47	-3.1%	-10.2%
산업재	자본재	대우조선해양	5,522	50	14.6%	7.5%
금융	기타금융	삼성카드	5,410	51	11.6%	4.4%
금융	은행	외환은행	5,217	52	7.6%	0.5%
산업재	자본재	GS건설	5,202	53	8.3%	1.1%
소재	소재	제일모직	4,987	54	-0.5%	-7.6%
산업재	자본재	대우건설	4,925	55	12.9%	5.7%
금융	증권	삼성증권	4,869	56	24.1%	17.0%
금융	증권	대우증권	4,525	57	26.4%	19.3%
소재	소재	한화케미칼	4,412	58	17.7%	10.6%
산업재	운송	현대상선	4,356	59	14.9%	7.8%
경기소비재	유통	현대백화점	4,166	61	12.3%	5.1%
산업재	자본재	두산	4,115	62	7.0%	-0.1%
산업재	운송	대한항공	4,002	63	17.0%	9.9%
필수소비재	음식료 및 담배	오리온	3,722	66	0.9%	-6.2%
산업재	자본재	두산인프라코어	3,523	68	6.4%	-0.7%
산업재	자본재	KCC	3,493	69	6.1%	-1.0%

자료: 유진투자증권, 제로인

주: 시총 순위는 2/3일 마감 기준. 섹터, 업종그룹은 Fnguide 분류



2009년의 경험- 지금과 유사한 상황에서 '가벼운' 주식이 초과수익을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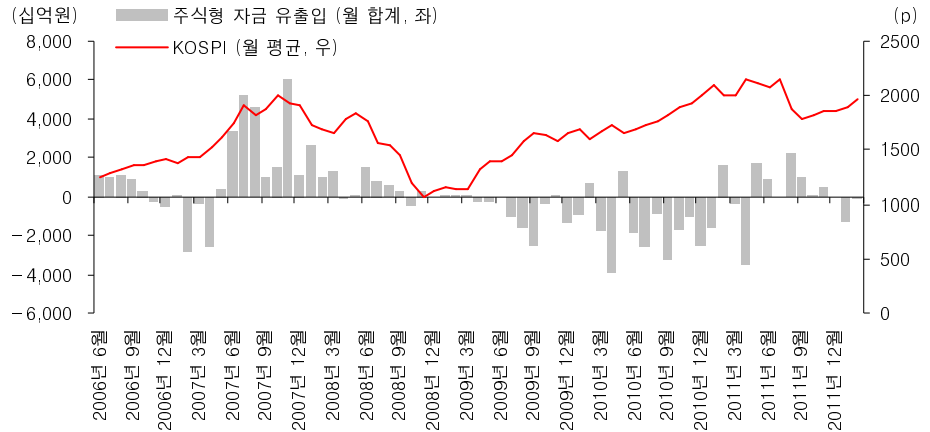
최근과 상황이 유사한
2009년에도 '가벼운'
주식들이 시장 대비
초과 수익을 기록했음

재미있는 점은 최근과 유사한 상황이 나타났던 2009년 상반기에도 기관 보유비중이 낮은 종목들이 KOSPI 대비 초과수익을 기록한 전례가 있다는 점이다.

최근과 유사한 상황이라는 것은 2009년 초반 역시 1) 지수 급락과 박스권에서의 등락 이후 시장이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는 초반기였고, 2) 외국인의 주식 매수가 시장 상승을 주도했으며, 3) 시장이 상승하면서 개인투자자들의 펀드 환매가 나타나고, 이에 따라 기관투자자들은 주식을 팔았던 시기였다는 점이다.

특히 2009년 4~9월은 외국인 주식 매수와 KOSPI 지수 반등, 그리고 펀드 환매와 투신 순매도가 확연하게 나타난 시기였는데, 이 기간 중에 기관 보유비중이 낮은 종목군이 시장 대비 양호한 수익률을 기록했다.

도표 11 공모 주식형 펀드 자금 유출입 동향



자료: 금융투자협회, 유진투자증권

도표 12 2009년 주식형펀드 자금 유출입, 투신, 외국인 주식 순매수 정리
- 4~9월은 펀드 환매와 기관 주식 매도가 집중됐던 시기

월	공모 주식형 펀드 자금 순유입 (월간 합계, 십억원)	KOSPI (월말 기준, p)	투신 주식 순매수 (KOSPI, 십억원)	외국인 주식 순매수 (KOSPI, 십억원)
2009년 1월	53	1,162	-1,613	769
2009년 2월	29	1,063	-2,907	-875
2009년 3월	92	1,206	1,057	45
2009년 4월	-235	1,369	-3,033	4,051
2009년 5월	-281	1,396	-4,319	4,077
2009년 6월	-49	1,390	-1,264	2,451
2009년 7월	-1,072	1,557	-1,184	5,853
2009년 8월	-1,573	1,592	-3,631	3,643
2009년 9월	-2,502	1,673	-2,375	4,826
2009년 10월	-348	1,581	-2,419	1,461
2009년 11월	38	1,556	-787	1,826
2009년 12월	-1,390	1,683	722	2,248

자료: 금융투자협회, KRX, 유진투자증권



아래 <도표 14>의 종목들은 2009년 3월 말 시점을 기준으로, 같은 방식을 이용해 시가총액 상위 중 기관 보유 비중이 낮은 종목을 추출한 것이다.

2009년 3월 말 기준으로 설정액 5000억원 이상인 25개 주식형 펀드를 샘플 펀드로 이용했으며, KOSPI 시가총액 상위 70위 이내 종목 중 샘플 펀드군 내 보유 상위 종목에 포함되지 않은 종목을 기관 보유 비중이 낮은 종목으로 간주했다.

<도표 13>에 정리한 것처럼 기관 보유 비중이 낮은 종목군은 2009년 4, 5, 6월에 평균 17.6%, 5.8%, -0.15% 상승해, 같은 기간 KOSPI 수익률을 각각 4.1%, 3.9%, 0.27%씩 상회하는 수익률을 기록했다.

도표 13 2009년 4~9월 기관 보유 비중이 낮은 종목 수익률

월별	KOSPI (p. 월말)	공모 주식형 한배 (십억원)	투신 순매수 (십억원)	외국인 순매수 (십억원)	기관 보유 비중 낮은 종목 수익률 평균 (%, A)	KOSPI 수익률 (%, B)	A - B (%)
2009-04	1,369	-235	-3,033	4,051	17.63	13.52	4.11
2009-05	1,396	-281	-4,319	4,077	5.83	1.94	3.89
2009-06	1,390	-49	-1,264	2,451	-0.15	-0.42	0.27
2009-07	1,557	-1,072	-1,184	5,853	10.72	12.03	-1.31
2009-08	1,592	-1,573	-3,631	3,643	1.93	2.22	-0.29
2009-09	1,673	-2,502	-2,375	4,826	5.77	5.11	0.66

자료: 유진투자증권

주: 기관 보유비중이 낮은 종목은 2009년 3월 말 기준 설정액 5000억원 이상 주식형 펀드의 보유 상위 종목 자료를 이용해 추정



도표 14 2009년 4~9월 기관 보유 비중이 낮은 종목 수익률 - 종목별 정리

종목명	KOSPI 시총 순위 (2009년 3월 말 기준)	2009년 4월 수익률		5월 수익률		6월 수익률		7월 수익률		8월 수익률		9월 수익률	
		절대	상대	절대	상대	절대	상대	절대	상대	절대	상대	절대	상대
신세계	15	6.04	-7.48	-4.05	-5.99	15.30	15.72	5.15	-6.88	-2.45	-4.67	14.86	9.75
삼성화재	16	9.38	-4.15	4.57	2.63	2.73	3.15	9.57	-2.46	8.74	6.52	7.59	2.48
두산중공업	17	22.79	9.27	-12.34	-14.28	-16.26	-15.84	14.36	2.33	-9.56	-11.78	6.31	1.20
삼성중공업	25	18.75	5.23	-0.99	-2.93	-3.65	-3.23	11.90	-0.13	-9.55	-11.77	-12.78	-17.89
우리금융	26	41.31	27.79	11.39	9.45	-7.69	-7.27	37.75	25.72	0.00	-2.22	13.52	8.41
외환은행	30	17.74	4.22	25.62	23.68	8.18	8.60	19.96	7.93	-6.30	-8.52	24.22	19.11
대한통운	32	2.46	-11.06	79.25	77.31	-14.11	-13.69	-8.21	-20.24	-6.68	-8.90	-0.86	-5.97
대우조선해양	33	6.06	-7.46	-9.89	-11.83	-2.44	-2.02	9.25	-2.78	-8.47	-10.69	-14.00	-19.11
삼성증권	34	14.01	0.49	9.41	7.47	-5.96	-5.54	13.28	1.25	-2.61	-4.83	-8.15	-13.26
삼성카드	35	21.97	8.45	23.89	21.95	-5.27	-4.85	11.23	-0.80	2.00	-0.22	3.53	-1.58
현대제철	36	26.49	12.97	10.52	8.58	-1.50	-1.08	21.69	9.66	10.45	8.23	-3.91	-9.02
현대상선	37	-1.11	-14.63	-4.32	-6.26	-4.12	-3.70	8.80	-3.23	0.75	-1.47	3.92	-1.19
대우증권	39	14.44	0.92	-2.14	-4.08	-7.54	-7.12	24.21	12.18	-2.75	-4.97	-6.10	-11.21
기업은행	41	22.63	9.11	15.24	13.30	13.12	13.54	28.77	16.74	-4.26	-6.48	7.04	1.93
미래에셋증권	42	5.06	-8.46	0.54	-1.40	-7.46	-7.04	12.37	0.34	-6.53	-8.75	-3.56	-8.67
대우건설	44	16.82	3.30	-8.44	-10.38	25.24	25.66	0.78	-11.25	7.69	5.47	0.00	-5.11
한국가스공사	47	5.69	-7.83	6.09	4.15	4.42	4.84	9.94	-2.09	-3.65	-5.87	6.39	1.28
기아차	48	31.89	18.37	6.22	4.28	5.44	5.86	21.83	9.80	10.10	7.88	10.06	4.95
강원랜드	49	13.45	-0.07	4.49	2.55	0.00	0.42	0.00	-12.03	1.23	-0.99	5.45	0.34
현대미포조선	52	15.44	1.92	-7.69	-9.63	-8.33	-7.91	7.51	-4.52	-9.19	-11.41	0.81	-4.30
대한항공	53	13.17	-0.35	-4.22	-6.16	-4.94	-4.52	25.42	13.39	-6.38	-8.60	14.83	9.72
두산인프라코어	54	22.45	8.93	-5.83	-7.77	-16.52	-16.10	15.19	3.16	7.67	5.45	-2.85	-7.96
삼성테크윈	57	31.64	18.12	28.24	26.30	-5.64	-5.22	-2.22	-14.25	10.51	8.29	20.05	14.94
삼성엔지니어링	58	33.22	19.70	15.97	14.03	-5.15	-4.73	4.96	-7.07	-8.66	-10.88	28.08	22.97
LG생활건강	60	17.28	3.76	9.63	7.69	11.63	12.05	2.08	-9.95	-1.81	-4.03	21.94	16.83
한화	61	27.12	13.60	-6.67	-8.61	-6.14	-5.72	20.09	8.06	11.03	8.81	-1.71	-6.82
대우인터내셔널	62	22.76	9.24	-5.63	-7.57	-3.33	-2.91	-5.44	-17.47	10.75	8.53	22.01	16.90
웅진코웨이	65	6.86	-6.66	-10.80	-12.74	8.77	9.19	-0.81	-12.84	12.36	10.14	9.55	4.44
한국타이어	67	15.91	2.39	-9.15	-11.09	19.78	20.20	18.32	6.29	12.69	10.47	5.63	0.52
현대글로벌비스	69	22.83	9.31	22.12	20.18	6.67	7.09	-9.08	-21.11	34.89	32.67	7.21	2.10
제일모직	70	21.85	8.33	-0.33	-2.27	0.11	0.53	3.59	-8.44	7.68	5.46	-0.20	-5.31
평균		17.63	4.11	5.83	3.89	-0.15	0.27	10.72	-1.31	1.92	-0.30	5.77	0.66

자료: 유진투자증권

주: 종목은 2009년 3월 말 기준 실장액 5000억원 이상 주식형 펀드의 보유 상위 종목 자료를 이용해 추정 한 것



Compliance Notice

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습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